

# ‘성실한 기록의 여정’ 추억을 소환하다



이경모 작 '광주중앙공립국민학교에 문을 연 광주계림국민학교' (1948)

**# 전남도립미술관 이경모 사진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붙잡혀온 단발머리 여수여고 학생들의 모습(1948년 10월)은 '여순사건'의 한 장면으로 기억된다. 해방 후 어수선한 시절, 월산동 가정집에서 쌀점을 치는 여인을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1946년)이 흥미롭다. 광양 출신 사진가 이경모(1926~2001)가 포착한 장면은 한국 근현대사의 증거의 현장이자, 생생한 삶의 모습이다. '이경모 사진전 : 역사가 된 찰나' (12월 18일까지)는 대한민국 기록 사진계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그의 사진 140여점과 생애가 담긴 개인자료를 만나는 전시다. 호남신문사(현 광주일보)의 전신) 사진부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한국 근현대사 격동기의 현장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여순사건과 6·25전쟁을 기록한 사진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1948년 10월 22일 아침, 고향에

## 12월18일까지 '역사가 된 찰나' 사진 140여점, 개인자료 등 전시

계신 부모님 소식이 궁금해 12킬로미터 떨어진 광양까지 걸어가다 수많은 학살현장을 목격했다. 그 중에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좌익학생으로 수배돼 은신하고 있던 친구의 시신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불타고 있는 여수 시가지 사진(1948년 10월)은 여순사건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며 화순 동북면 집단수용 난민촌(1951년 4월) 등은 6·25전쟁의 상흔을 포착했다. 1945년 8월에 찍은 광주서국민학교 교정은 해방 후 풍경을 한눈에 보여준다. 일장기를 번조한 태극기, 철거되지 않은 신사참배단, 일제가 식량조달을 위해 발로 만든 파헤친 운동장 등이 그것이다. 고향인 광양 유당공원의 1940~50년대 모습이나

‘역사와 삶을 담다.’ 사진이라는 장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기록’일 것이다. 영글에 잡힌 장면 장면은 시간을 붙잡고, 사라져버릴 뻔한 역사를 현재로 불러낸다. 생생히 살아 있는 일상의 모습은 추억을 소환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과 광주시립미술관이 다큐멘터리 사진에 천착해 온 두 명의 사진작가를 초청, 기획전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의 ‘성실한 기록의 여정’을 따라가본다.



‘여순사건 당시 붙잡혀온 여수여고 학생들’ (1948)

하나의 교사(校舍)를 나눠쓰던 광주중앙공립국민학교와 광주계림국민학교의 모습, 화순 탄광의 광부 휴게실, 방직공장 직물을 말리던 광주 개천가 등의 작품은 잊혀져 가는 풍경들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사진가 이경모가 사진관을 담아내는 사진가가 아닌, 사진 속의 사람을 유심히 살피고,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의 풍경을 미학적으로 고려해 사진에 담아내는 작가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옥수 작 '해우(김)로 그리는 벽화 한 점의 아름다움' (1980년대 후반 완도)

**# 광주시립미술관 최옥수 사진전**  
“카메라 자체에는 거짓이 없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진실을 끄집어 내려 늘 노력했다.” 최근 다양한 인물을 담은 ‘얼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최옥수(68) 사진작가는 오랫동안 남도의 풍경과 인물을 포착해왔다.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촬영은 특히 1987년부터 10년간 월간 ‘금호문화’에서 사진을 담당하며 빛을 받았다. 그가 발품을 팔아 남도 곳곳을 찾은 여정에서 포착한 장면들은 우리 지역의 아카이브 자료 역할을 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광주시립사진전시관은 지역의 중견 사진작가를 초청,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올해는 최옥수 사진전 ‘사라지고, 살아있다’ (2023년 3월 26일까지)를 열고 있다. 전시를 위해 필름 정리에 열중했던 최 작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전시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잊혀진 하루’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 버린 남도의

## 2023년3월26일까지 '사라지고...' 남도 풍경·인물...4개 섹션 구성

일상을 만난다. 등목으로 더위를 날리는 모습, 지금은 없어진 남광주역 대합실과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다. ‘떠오르는 얼굴’에서는 잊고 지냈던 어릴 적 친구와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과거의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배 타고 고기잡이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의 뒷모습, 수줍은 듯 교실에서 웃는 아이들 등 눈물과 웃음, 그리움이 담긴 사진들이다. ‘어린 마음’은 전통 혼례나 마을 제사, 굿 등 사람과 사람, 신과 인간을 이어주던 남도 사람들의 여러 리레 풍경을 담았으며 ‘사라진 땅과 바다’에서는 땅과 바다를 생명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던 남도 사람들의 애환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통기타 낭만을 노래하다

광주문화재단, 통기타 50주년기념 공연...17일 5·18기념문화센터

광주 통기타 음악은 지난 1972년 겨울 고(故) 이장순과 국소남 두 사람이 옛 광주학생회관에서 공연을 가진 것을 시작점으로 본다. 이날 공연은 이장순의 리사이틀로 계획되었으나 이장순의 연락을 받은 국소남이 합류하면서 듀엣 공연이 됐다. 두 사람은 이날 공연 후 광주 MBC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에 고정출연하면서 광주에 통기타 음악을 알리기 시작했다. 광주 통기타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황풍년 대표이사)은 오는 17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민주홀) 공연장에서 광주 통기타 음악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광주 통기타 낭만을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재단이 통기타 문화 50년을 기념해 1세대 국소남이 지역 신문에 연재했던 ‘광주 포크음악 반세기-통기타는 영원하다’를 책으로 출판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의미가 더욱 깊다. DJ 주광 씨의 사회로 이날 공연에서는 광주 통기타 1세대인 고 이장순 씨의 추모 영상을 감상하고, 이어 ‘통기타는 영원하다’의 저자 국소남 씨가 미국

포크 가수 존 바에즈가 불렀던 ‘도나도나’를 연주한다. 이어 정영주, 김종민, 이미랑, 하성관, 한종면, 김원중, 기현수, 한보리, 오영목 씨 등 광주 통기타 음악을 지키고 있는 가수들이 출연해 1977년 대학가요제 동상 수상곡 ‘저녁 무렵’, 1978년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 ‘모모’ 등을 들려준다. 하성관 씨와 김원중 씨는 자신들의 히트곡인 ‘빙빙빙’, 그리고 ‘바위섬’을 직접 부른다. 꼬두메 출신의 한보리, 오영목 씨가 나와 ‘나뭇잎 사이로’, ‘꿈’ 등으로 가을의 낭만을 함께한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꼬두메 창립 멤버이자 작사가인 김순곤 씨가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해 광주 포크 음악과 자신의 노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순곤 씨는 조용필의 ‘고추 잡자리’, ‘꽃밭에서 피꼬리’, ‘바람의 노래’,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사가이며, 그가 만든 노래 가사만 1000곡이 넘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원중

국소남

# 떠나간 스승을 그리워하며... '우전 이대휴 보은' 공연

터울림전통예술원, 19일 담양 담빛농업관



우전 이대휴

떠나간 스승을 그리워하며 만든 제자들의 무대가 저물어가는 가을에 애절하게 적신다. 터울림전통예술원은 19일 오후 3시 담양 담빛농업관 3층에서 '우전 이대휴 보은 예(愛)길' 공연을 연다. 지난해 작고한 고 이대휴 설장구 명인을 그리며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무대로, 고향에 모인 제자들의 다양한 춤사위와 연주를 엿볼 수 있다. 고 이대휴 명인은 전남무형문화재 제7호 고 김오채 명인의 설장구 이수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로 활동했다. 또 한국민속촌과 전남도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장과 나주시립극단 상임지휘자, 광주시문화재 광산농악보존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무대에는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이자 국악방송진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담양용소에서 목포바다에 이르는 여정

담양 출신 방승희 시인, 그림책 '영산강 이야기' 펴내



남도의 젓줄 영산강은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형상화됐다. 영화로, 드라마로, 소설로, 동화로, 동시에 장르를 넘어 다채롭게 콘텐츠화 되는 것은 그만큼 영산강이 풍부한 서사성을 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남도의 작가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영산강으로부터 창작의 에너지를 제곱받고 있는지 모른다. 담양 출신 방승희 시인이 그림책 '영산강 이야기' (모해출판사)를 펴냈다. '영산강 이야기'는 지난 2018년 목포문학상 아동문학 부문 수상 작품이기도 하다. 고향이 담양인 방 시인은 어려서부터 용소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 목포 유달산 아래에는 고하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용이 누워 있는 형상이라 하여 '용섬'이라 부른다고 한다. 시인은 이곳에서 잠

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강길원이 사회를 맡는다. 기획 및 총감독에는 서정미 광주무형문화재 제8호 팽과리 이수자가 참여한다. 공연은 이순임 청자공진희희 단장이 '살풀이 춤'을 선보이며 막을 열고 마유정과 이주아가 판소리 단가 '사철가'를 가야금 병창으로 펼친다. 이어 서정미와 김미자, 이은자, 정영은, 정진순, 차병희가 '진도북춤'을 무대에 올린다. 다음으로 소리꾼 강길원이 판소리 단가 '추억'과 남도잡가 '홍타령'을 부르며 스승을 추모한다. 김현숙, 조소화, 최경아는 '입춤고'를 통해 무용수들의 흥겨운 춤사위를 선보이고 김정기, 이민후, 강병하, 윤경, 김현승이 문동광대가 내면의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표현한 '문동북춤'을 보여준다. 한편 터울림전통예술원은 지난 2005년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과 문화 향유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 현재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들어 있는 큰 용의 환상을 봤고 이것이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 작품은 영산강의 발원지 담양 용소에서 시작해 목포 바다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낸다. 작가는 담양에서 발원한 영산강을 한 마리 용에 비유한다. 하늘로 오르려다 승천하지 못하고 광주와 나주, 영암, 무안을 거쳐 목포까지 흘러가는 용을 초점화했다. 용소를 떠난 용은 점차 자신의 금빛 비늘을 하나씩 떼어주면서 그 주변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용은 고하도에 잠이 들어 있는데 꼬리는 용소에 담겨 있다. 한마디로 영산강 전체가 용이다. 정용원 시인은 목포문학상 심사평 중에서 "들르는 곳마다 반짝이는 비늘을 한 움큼씩 나눠주는가 하면 에메랄드빛 눈망울을 깜빡하고 잠을 잔다거나 물결과 바람과 구름이 속삭이는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를 읽는 것 같은 신비감과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고 평한다. 그림은 광주가 고향인 정인성 작가와 천복주 작가가 그렸다. 부부인 두 작가의 환상적이며 동화적인 그림을 보는 맛도 쏠쏠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